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7월 31일
제1907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하다. (루카 12,20-21)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에기노 바이너트

연중 제18주일 (다해)

제 1 독 서 코헬 1,2; 2,21-23 | 그 모든 노고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화 답 송 시편 90(89)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 서 콜로 3,1-5.9-11 | 여러분은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루카 12,13-21 |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때에 ¹³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¹⁴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¹⁵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¹⁶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¹⁷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¹⁸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저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¹⁹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²⁰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²¹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성화 해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에기노 바이너트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재산을 모을 줄만 알고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 주셨다.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

왼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군중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자가 창고에 가득한 재산을 가리키며 흡족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그 날 밤 죽은 부자가 가련한 모습으로 땅에 누워 있다. 〈정응모 신부〉

복음 묵상

어릴 적 천 원만 있으면 꼭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제 눈이 삼천 원짜리 장난감에 꽂혔습니다. 또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돈이 모아져 이번에는 장난감을 사기보다 저금통장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보니, 장난감은 구경도 못 하였고 저금통장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더’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지금도 곧잘 그런 행동을 하는 저를 문득문득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재물이 모든 것을, 곧 생명마저도 보장해 주리라고 믿은 나머지 그것에 집착하여 우상처럼 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은 참으로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며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큰소리를 내지도 호들갑을 떨지도 않으며 조용히 사람들에게 ‘조금 더’라는 소리만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점점 남의 입과 주머니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이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재물을 모으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내 얼굴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자신이 지닌 것에 만족하며 감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탐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인호 루카 신부〉

교황, 서울서 열리는 ‘시그니스 세계총회’에 메시지

“디지털 미디어, 평화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시그니스(SIGNIS, 세계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세계총회 참석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교황은 “새로운 폭력과 침략의 발발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때때로 해악과 편파적 발언,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곤 하는 디지털 세계에서조차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세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이 같은 과업은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시그니스 세계총회는 오는 8월 15-18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

교황은 메시지를 시작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복음화 역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활자로 인쇄된 말씀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본질적이었는지 잘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여 년 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현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디지털 미디어, 대화와 친교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

교황은 디지털 미디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십 년간 디지털 미디어 혁명은 인류 가족 간의 친교와 대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개월 동안 봉쇄를 겪으며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필수적인 정보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고립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많은 경우 기도와 예배 안에서 온 인류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 심각한 윤리적 문제

교황은 디지털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여러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종사하는 이들, 나아가 인간 관계에 대한 진정성과 품격을 우려하는 모든 이의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요구합니다.” 교황은 “때때로 어떤 곳에서는 미디어가 해악과 편파적 발언, 가짜 뉴스의 현상이 되기도 한다”며,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그니스가 “미디어 교육, 가톨릭 미디어 간의 네트워킹, 거짓과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교황은 오늘날의 도전을 마주하도록 부름받은 시그니스 회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 건전한 비판적 감각을 개발하고, 정의를 위한 활동, 사회적 화합,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포용

교황은 “디지털 공간에서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는 세계의 많은 지역 사회”를 잊지 않으며 “그들을 배려하여 디지털 공간 안에 포용하는 것을 활동의 우선순위로 삼아 주길” 당부했다. 이로써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교황은 강조했다.

◆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메시지의 말미에 교황은 올해 제56차 홍보주일 담화에서 “대화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경청”을 강조했다. 교황이 강조하는 경청은 “마음의 귀”로 듣는 일이다. “경청의 사도직은 누구보다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인 여러분의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개인 간의, 그리고 보다 크게는 공동체 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 시노드 여정

교황은 최근 교회 전체가 함께 걷고 있는 시노드 여정에 있어서도 언제나 경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여정 안에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친교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키워 나가길 당부했다. 교황은 이러한 노력이 더욱 더 “어우러지는 교회”, “조화를 이루고 다성음악으로 일치를 드러내는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마지막 인사와 축복으로 메시지를 끝맺었다.

1 세계선교를 위한 특별헌금(8월 7일)

- 알링턴 교구에서는 매년 세계선교를 위해 특별헌금을 실시합니다.
- 이번 해 우리 본당은 **Our lady of Good Health Provincialate Pallottine Fathers and Brothers** (팔로틴 수도회/인도)를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 지원은 미사, 성사, 종교 교육과 같은 신앙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기본적인 사목 서비스는 물론 음식, 주거 및 의료와 같은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돕습니다.
- 팔로틴 수도회 프란시스 마리아다스 신부님께서 오셔서 8월 7일(일) 2차 헌금을 하십니다.

- 체크로 기부할 경우 : SPCC나 MCP로 해주시시오.
 - e-giving :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our-lady-of-good-health-provincialate-pallottine-fathers-and-brothers/>

2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주제 : 8월 3일(수) - '목동에서 왕으로'(사울과다윗) / 사무엘기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3 병자 영성체

- 일시 : 8월 5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또는 사무실
- 8월 3일(수)까지 신청해 주세요.

4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5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8월 6일(토) 오전 10:30 (첫 토요 신심 미사)
-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로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6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8월 7일(일) 오전 11:30 (B-1,2)

7 유아세례

- 일시 : 8월 13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초등학교 4 - 6학년
- 신청 : 8월 14일(일)까지
- 문의 : 권운우 스테파노 (571) 244-0333

9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th-12th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10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성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 열리 버드 등록 기간 : 7월 10일(일) - 7월 31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 \$200 (7월 이후)
- *Early Bird Registration Discount(July 10 - 31):
\$10 off 1 child / \$20 off two children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11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2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후보 선발 미사

- 일시 : 8월 13일(토) 오전 10:30
- 장소 : St. Elizabeth Ann Seton Parish
- 다니엘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중에 기억해 주세요.

13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 체육관 사용을 8월부터 재개합니다.
- 개별적,개인적인 동우회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시설 사용중 시설재물손상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하상관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 장소 사용은 가톨릭 신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쓰레기, 원 상태의 물품이 아닌 것은 치운다.
- 퇴실 시 건물 내부에 있는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한다.
- 하상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체육관 출입 시 굵이 뾰족한 신발은 출입을 금한다.
- Locker Room과 샤워실 사용 시 사용자(사용 책임자)가 깨끗이 청소하고 떠난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체육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육관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20대 사도회 회장단으로 2년여 동안 본당의 발전과 일치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황원균 알렉산더 회장님과 모든 부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대 사도회 회장단 선임

본당 사도회 회장단이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회장단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장 : 강세원 바오로
- ◆운영 부회장 : 안민철 미카엘
- ◆구역 부회장 : 지경수 요한
- ◆단체 부회장 : 빈용식 바오로
- ◆전례 부회장 : 이규철 베드로
- ◆청소년 부회장 : 김윤희 안젤라
- ◆여성 부회장 : 박인경 소피아
- ◆총무 : 정문기 윌리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24일(연중 제17주일)

주일 헌금	\$ 6,708.00
교무금	\$ 3,820.00
교무금(신용카드)	\$ 2,950.00
감사 헌금	\$ 860.00
온라인 봉헌	\$ 980.00
합계	\$ 15,31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8월 4일(목) 오후 5:00-6:00
8월 5일(금) 저녁 8:00-9:00
8월 7일(일) 오전 6:00-7:00

- 주일 강론
- [특강] 김대우 모세 신부 :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